

한솔케미칼, 순이익 130억원 흑자전환

교보증권, 주력제품 과점으로 가격상승 상쇄 ... 원가상승분 전가 용이

교보증권은 6월22일 한솔케미칼(옛 한솔케미언스)에 대해 2004년 흑자전환이 예상되고 배당투자로서의 매력 이 높다고 평가했다.

교보증권에 따르면, 한솔케미칼은 과산화수소, 라텍스, 요소수지 등 주력제품 시장에서 과점적 위치를 점하 고 있고 한솔제지, 한솔홈데코 등에 대한 매출비중이 40%에 달하고 있는 등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고유가로 인해 다른 화학기업들의 원가압박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솔제지와 제지제품 가격의 원가연동 방식으로 계약하는 등 원가 상승요인에 대한 가격전가 능력이 비교적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.

교보증권은 한솔케미언스가 한솔텔레콤, 한솔LCD, 한솔캐피탈 등 부실 계열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중 부 실자산 매각에 대한 처분손실 및 감액손실 발생에 따른 경상부문 실적 악화로 3년 연속 적자 기록했지만 2004 년에는 흑자전환이 확실시된다고 강조했다.

교보증권 이혁재 연구원은 “한솔케미칼이 2004년 약 1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 며 흑자 전환을 계기로 2004년부터 주당 500원 이상의 배당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현재주가 3055원 기 준 16.4%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돼 배당 투자로서의 매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”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4/06/23>